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

노 성 향¹⁾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 238명이고, 질문지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식 및 이용현황,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로 유목화 하여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취업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이 필요하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방과후 활동 참여 비용은 현저히 차이가 나타나, 초등돌봄교실이 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운영시간에 대한 조사결과, 아침돌봄에 대한 요구는 많지 않아, 2011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많은 비용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아침돌봄 운영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취업모가 이용하고 있는 취업모보다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현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95.1%가 방학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36.9%가 주말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우수한 돌봄교실 강사 확보,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본 연구 결과, 초등돌봄교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이용실태와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수준이 높은 강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추후 심층면담, 아동대상조사,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초등돌봄, 취업여성, 초등학교 저학년아동

1) 교신저자 :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magarita@daegu.ac.kr)

I. 서론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연령별 고용률 추이가 M자형 커브로 29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상승하지만 30대에는 최저점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6%이지만,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은 66.2%, 30~34세 여성고용률은 52.9%, 35~39세 여성고용률은 54.3%로 여성은 30세 이후부터 경력단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통계청, 2012). 선진국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은 여성은 일시적으로 출산·육아기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고학력 여성이 출산과 양육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OECD, 2009).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은 학력과 무관하게 출산과 육아기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낮고 출산과 육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여성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고용정책이 연령별로 제시되어야 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취업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육아휴직제도 보완, 직장보육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료 지원 등 보육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주로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생이 학교 수업을 마친 방과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이나 보호를 제공해 줄 만한 공식적인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초등학교생의 보육지원과 여

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공부방’이 운영되었고, 1990년대는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을 운영하였다.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던 방과후 보육은 2004년 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책”에 방과후 보육의 기능을 적용한 방과후 교실을 추가함으로써 초등학교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6년부터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보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보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어, 2012년 5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초등돌봄교실¹⁾), 여성가족부(아이돌보미²⁾),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³⁾), 어린이집⁴⁾에서 아동의 보육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2011)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전체 유배우 가구 중 43.6%정도이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연령별 규모를 살펴보면, 영유아가 약 85만명, 초등학교생이 138만명(저학년 63만명, 고학년 75만명)인데, 초등학교생 중 방과후 기관(초등돌봄교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1) 2011년 6월 현재 전국 5,430개교(92.4%)에서 6,639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124,013명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 2010년 12월 현재 224개소의 아이돌보미사업기관을 통해 1,008,181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여성정책연구소, 2011).

3) 2011년 5월 현재 3,802개소에서 102,089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 중 초등학교생은 75%인 76,419명(저학년 34,061명, 고학년 42,358명)이다(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1).

4) 2010년 12월 현재 1,250개소에서 9,810명의 초등학교생이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아동은 약 21만명⁵⁾에 불과해,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공적인 보호 및 교육기관의 부족은 “자기보호 아동”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냈다. “자기보호 아동”은 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방과후 시간에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자매하고만 지내는 아동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만 6~8세에는 8%수준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인 만 9~11세에는 23%정도로 추정(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된다고 한다.

방과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기보호 아동은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도 많으며 심리적인 불안정감을 호소하기도 해서 이로 인해 정서장애, 건강손실, 학습부진 등의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노성향, 2005; 엄경애, 2010). 자기보호 아동의 문제 때문에 초기의 방과후 아동보육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노성향, 2004), 학령기 아동이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학업성취도 및 사회적 기술이 향상(권오인, 200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7; 노성향, 2005; 이옥, 노성향, 1996; 이종금, 2005; Posner & Vandell, 1994) 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김홍원, 2011), 방과후 보육은 보호를 넘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방과후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

서 운영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7; 김혜림, 2006; 이종금, 2005), 정부의 정책 또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프로그램은 200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하반기부터는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종일돌봄교실’을 도입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의 전면 확대로 초등학생의 토요일 휴업일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오후돌봄 뿐 아니라 아침돌봄, 저녁돌봄 등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⁶⁾은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야간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민들이 자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따라서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운영에 반영해 나가야 된다. 특히, 기존의 오후돌봄을 확대하여 아침

5)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연 480시간 이용의 원칙과 지속적인 이용아동을 추정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외한다.

6) 초등돌봄교실(종전의 방과후교실, 초등보육교실, 종일돌봄교실 등 초등돌봄교실로 명칭 통일)은 초등학교에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탁아, 학습지도, 과제학습, 특기·적성교육 등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함께 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을 7,400개소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돌봄과 저녁돌봄을 도입한지 1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아, 종일돌봄이 필요한지 또는 프로그램의 재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초등돌봄을 위한 장소로 초등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정부의 정책도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시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돌봄교실프로그램을 현재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보완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돌봄교실의 수요자가 주로 저학년아동이므로,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선택하는 데 영향력이 큰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선행연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7)에 의하면 초등돌봄 교실은 저소득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모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이용도의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기여하며 급변하는 돌봄정책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과 아동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요구는 어떠한가?

II.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이해

1. 초등돌봄의 개념 및 발달과정

미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보호하고 교육하는 after school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방과후 탁아”, “방과후 교실”, “개방학교”, “방과후 아동교실”, “아동공부방”, “어린이 공부방”, “방과후 보육”, “방과후 아동지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이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공적인 영역의 방과후 보육은 1996년 6월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아동지도 활성화 방안’ 발표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1996년 이후 각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근거하여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 운영기준’과 ‘초등학교 내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요령’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2003년 1월 UN 아동권리 협약 이행관련 제2차 국가 보고서 심의에서 초등학생의 방과후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방과후 활동의 주된 대상이었던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의 형태로 모든 아동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방과후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4년을 기점으로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저출산과 맞물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활용을 목

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권장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였으며, 방과후 교실이 초등보육프로그램(현, 초등돌봄교실)으로 불렸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6년에는 400개의 초등학교, 2007년에는 700개 초등학교의 보육교실 시설지원금을 지원하였다. 2008년부터는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시·도교육청과 시·군·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신규운영 학교에는 구조 변경비와 운영비를, 이미 시설지원금을 받은 학교에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2,491개 교실)를 지원하였다. 2009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부터 학교가 부모역할을 대신하여, ‘정규 수업+방과후 활동+가정’의 3가지 기능을 야간까지 지원하는 종일돌봄교실이 등장하였다. 교육과학부(이하 교과부)에서는 2011년부터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92.4%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운영 학급수는 6,639개이다. 참여 학생 수는 2011년 현재 124,013명이며, 저소득층 자녀는 20.9%, 맞벌이가정 자녀 등(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은 79.1%이다(김홍원, 2011).

2. 초등돌봄교실 정책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1년 3월

부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후 온종일 돌봄교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가정과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엄마품과 같은” 안전하고 질 높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온종일 돌봄교실의 운영지원 및 운영시간은 기존의 돌봄교실을 구조 변경하고 운영시간대를 확대하여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등돌봄강사를 채용하여 아이들에게 식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교과부-시·도교육청-지자체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을 공동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학교에는 각 교실 당 평균 5,000만원(특별교부금 50%, 교육청·지자체 50%)을 지원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돌봄 수요가 많은 도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수요가 있는 농산어촌까지 포함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질 높은 돌봄교실의 확충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저소득가족이나 맞벌이 가족의 부모를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여 점점 더 공급을 늘려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예산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확보하고 교실환경에 대한 규정과 돌봄강사 채용이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자체 별로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에 따라 운영형태가 상이하고, 돌봄강사의 자격이나 처우가 다양하다. 현재 지자체에 따라 돌봄강사가 계약직으로 1년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 돌봄강사의 처우와 자격이 표준화 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교과부는 2011년 11월에 방과후학교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방과후학교의 사회적 기업 위탁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맞벌이 가구를 바탕으로 수익 구조를 창출하면서 저소득층 가구 아동 발달의 욕구와 돌봄을 충족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의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과 기업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을 확산하는 두 가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2012년 2월에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22개를 선정 발표하였다. 선정된 22개 대학 사회적 기업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815개 프로그램(교과관련 246개, 특기적성 관련 416개, 주말 특화 및 보육관련 153개)을 준비하여 2012년 3월부터 단위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의 입소 대상은 초등학교 전학년(1~6학년)이지만 실제 고학년 아동

은 학교에서 정규수업시수가 많아 방과후 시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짧고, 학원 등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를 조사대상자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11년 11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고, 2011년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단계 임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서울과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8)

문항	범주	명(%)
연령	30세 미만	6(2.5)
	30~34세	37(15.5)
	35~39세	112(47.1)
	40세 이상	83(34.9)
학력	고졸이하	35(14.7)
	전문대졸	71(34.9)
	대졸	101(42.5)
	대학원졸	31(13.0)
직업	전문직	41(17.2)
	회사원	82(34.5)
	판매직	42(17.6)
	서비스직	45(18.9)
	기타	28(11.8)
월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4(14.3)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3(47.5)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56(23.5)
	700만원 이상	31(13.0)
	무응답	4(1.7)
초등돌봄 교실 이용유무	이용	103(43.3)
	이용하지 않음	135(56.7)

수도권의 6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모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300부의 질문지 중 253부를 수거(회수율 84.3%)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15부를 제외하고 238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령은 35~39세가 전체 응답자의 47.1%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졸(42.5%)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회사원(34.5%)이 가장 많았고, 월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전체 응답가구의 47.5%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 취업모 중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43.3%정도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선행연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7)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현장 전문가와 대학교수 4인에게 내용타당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문항을 그대로 본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4문항),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식 및 이용현황(7문항),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요구도(14 문항)로 유목화 하여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4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2. 조사문항

인식 및 이용현황	인지도, 초등돌봄교실의 필요성
	참여 이유, 참여하지 않는 이유
	방과후 참여하는 활동, 비용 만족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요구	희망하는 운영형태, 학급구성
	희망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선호하는 돌봄교실 프로그램성격, 선호하는 돌봄교실 프로그램
	희망하는 교사 자격, 희망하는 교사 학력
	주말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시간, 희망하는 주말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시간, 희망하는 방학프로그램
일반적 사항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방안
	응답자 연령, 응답자 직업, 최종학력, 가계 월소득

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과 아동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실태

초등돌봄교실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를 한 표 3을 보면,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표 3. 초등돌봄교실 인지도, 필요성

(단위: 명, %)

문항	구분	알고 있었다	알지 못했다	차이검증
인지도	이용 학부모(103)	95(92.2)	8(7.8)	$\chi^2=3.24$
	비이용 학부모(135)	120(88.9)	15(11.1)	n.s.
변인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차이검증
필요성	이용 학부모(103)	100(97.1)	3(2.9)	$\chi^2=4.32$
	비이용 학부모(135)	124(91.9)	11(8.1)	n.s.

있는 학부모는 92.2%가, 비이용 학부모는 88.9%가 초등돌봄교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도는 돌봄교실 이용취업모와 비이용취업모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등돌봄교실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는 97.1%가 초등돌봄교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비이용학부모는 9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내고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본 표 4를 보면, 방과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61.2%), 그 다음은 친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

표 4. 초등돌봄교실 참여 이유, 만족도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초등 돌봄 교실 참여이유	방과후 아동을 돌봐줄 성인이 없어서	63(61.2)
	숙제 지도, 학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	14(13.6)
	친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16(15.5)
	비용이 저렴해서	8(7.8)
	기타	2(1.9)
	구분	만족도
초등 돌봄 교실 이용만족도	초등돌봄교실 강사	4.16
	초등돌봄교실 물리적 환경	4.22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4.52
	초등돌봄교실 비용	4.41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4.15
	전체	4.29

주 : 매우불만족 1점, 조금불만족 2점, 보통 3점, 조금만족 4점, 매우만족 5점으로 측정함.

을 함께해서(15.5%), 숙제 지도 등 학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13.6%), 비용이 저렴해서(7.8%)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응답으로 학교에서 운영해서 안심이 된다고 응답이 있었다.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취업모에게 초등돌봄교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4.29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4.52이고 초등돌봄교실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4.41로 나타나,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등 다양한 운영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과 프로그램 이용비용이 저렴한 것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표 5를 보면, 다른 활동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53.3%) 보내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표 5.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¹⁾

(단위: 명, %)

이유 \ 부모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차이검증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30)	11 (64.6)	8 (20.0)	6 (10.5)	5 (23.8)	$\chi^2=19.73$ $p<.01$
다른 활동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72)	2 (11.8)	22 (55.0)	37 (64.9)	11 (52.4)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19)	3 (17.6)	6 (15.0)	8 (14.1)	2 (9.5)	
저소득층 아동 전용 이미지 때문(14)	1 (5.9)	4 (10.0)	6 (10.5)	3 (14.3)	
전체(135)	17	40	57	21	
이유 \ 가계소득	300만원미만	300~500만원	500~700만원	700만원이상	차이검증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30)	10 (58.8)	12 (19.1)	8 (26.7)	-	$\chi^2=45.32$ $p< .001$
다른 활동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68)	2 (11.8)	38 (60.3)	15 (50.0)	13 (61.9)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19)	3 (17.6)	7 (11.1)	4 (13.3)	5 (23.8)	
저소득층 아동 전용 이미지 때문(14)	2 (11.8)	6 (9.5)	3 (10.0)	3 (14.3)	
전체(131) ²⁾	17	63	30	21	

1) 교차분석의 경우 한 cell의 최소빈도가 5이상이어야 되므로 해석 시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2) 비이용응답자 135명 중 가계소득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하고 131명을 분석하였다.

(22.2%),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0.4%)순이었다.

초등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이유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χ^2 검증분석 해 본 결과, 직업, 연령에 따라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력수준, 가계소득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취업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고졸학력을 가진 취업모는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업인 경우 다른 이유들 보다 ‘다른 활동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높은 비율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 전용 이미지’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는 부모도 학력수준이 낮은 취업모보다 높은 취업모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가계소득에 따라 살펴본 표 5를 보면,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집단은 가계소득이 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가계소득이 300~500만원, 500~700만원, 700만원 이상인 집단은 ‘다른 활동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소득층 아동 전용 이미지’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계소득이 500~700만원,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참여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 표 6을 보면, 돌봄교

표 6. 방과후 참여활동(다중응답) (단위: 명, %)

활동유형	초등돌봄 교실이용 (n=103)	초등돌봄 교실비이용 (n=135)
초등돌봄교실	103(100)	0(0)
학교의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20(19.4)	37(27.4)
보습학원 (수학·영어 등)	3(2.9)	19(14.1)
예체능학원 (음악·미술·태권도)	19(17.6)	89(65.9)
컴퓨터학원	2(1.9)	15(11.1)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3(2.9)	11(8.2)
개인·그룹과외	0(0)	16(11.9)
학습지 방문교사 지도	33(32.0)	72(53.3)
인터넷 학습	0(0)	2(1.5)
기 타	0(0)	1(0.7)

실을 이용하는 아동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참여활동에 차이가 있었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은 학습지방문교사지도(32.0%), 초등학교의 방과후 특기적성활동(19.4%), 예체능학원(17.6%)순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예체능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65.9%로 가장 많았고, 학습지방문교사지도(53.3%), 초등학교의 방과후 특기적성활동(27.4%), 보습학원(14.1%)순으로 참여하고 있었다(표 6 참조).

방과후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조사해 본 표 7을 참고해보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은 응답자의 35.0%정도가 10~2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응답자의 38.9%가 20~

3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χ^2 검증결과,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가계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아동은 방과후 활동의 비용으로 10만원미만(47.1%)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20만원(35.2%)순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가계소득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아동은 10~20만원(42.0%),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아동은 20~30만원(46.2%), 700만원 이상인 아동은 20~30만원(50.5%)이 가장 많았

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가계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아동은 방과후 활동의 비용으로 20~30만원(41.2%)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아동은 20~30만원(41.2%),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아동은 30만원이상(43.3%), 700만원 이상인 아동은 30만원이상(47.6%)이 가장 많았다. 가계소득, 초등돌봄교실 이용 여부에 따라, 방과후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에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방과후 활동 지출비용

(단위 : 명, %)

구 분		300만원 미만(34)	300~500만원 (113)	500~700만원 (56)	700만원 이상(31)	차이검증
돌봄 교실 이용 (103)	10만원 미만 (18.5)	8 (47.1)	11 (22.0)	-	-	$\chi^2=65.55$ $p<.001$
	10~20 만원 (35.0)	6 (35.2)	21 (42.0)	7 (26.9)	2 (20.0)	
	20~30 만원 (29.0)	2 (11.8)	11 (22.0)	12 (46.2)	5 (50.0)	
	30만원 이상 (17.5)	1 (5.9)	7 (14.0)	7 (26.9)	3 (30.0)	
	전체 (103)	17	50	26	10	
돌봄 교실 비이용 (131)	10만원 미만 (6.9)	3 (17.6)	6 (9.5)	-	-	$\chi^2=70.08$ $p<.001$
	10~20 만원 (26.0)	5 (29.4)	18 (28.6)	8 (26.7)	3 (14.3)	
	20~30 만원 (38.9)	7 (41.2)	27 (42.9)	9 (30.0)	8 (38.1)	
	30만원 이상 (28.2)	2 (11.8)	12 (19.0)	13 (43.3)	10 (47.6)	
	전체 (131)	17	63	30	21	

2.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요구

방과후부터 5~6시까지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은 2011년부터 아침돌봄(6시30분~8시30분), 오후돌봄(방과후~17시), 저녁돌봄(17시~22시)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침돌봄은 이용자가 많지 않

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아침돌봄만을 희망한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고, 아침돌봄을 희망하는 응답자도 많지 않았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66.0%,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의 72.6%가 오후돌봄만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표 8.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요구

(단위 : 명, %)

문항	구분	이용 학부모 n=103	비이용 학부모 n=135
선호하는 운영시간	아침돌봄만	0(0.0)	0(0.0)
	아침+오후운영	5(4.9)	5(3.7)
	아침~저녁운영(종일운영)	2(1.9)	0(0.0)
	오후 ~저녁운영	26(25.2)	32(23.7)
	아침과 저녁운영	2(1.9)	0(0.0)
	오후만 운영	68(66.0)	98(72.6)
선호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10명이하	97(94.2)	120(88.9)
	11~15명	5(4.9)	8(5.9)
	16~20명	1(0.9)	7(5.2)
	21명이상	0(0.0)	0(0.0)
선호하는 학급구성	단일학년	77(74.8)	72(53.3)
	저학년 혼합반	24(23.3)	57(42.2)
	전학년 혼합반	2(1.9)	6(4.5)
적절한 교사자격	보육교사	36(35.0)	27(20.0)
	유치원교사	25(24.3)	20(14.8)
	초등학교 교사	27(26.2)	52(38.5)
	사회복지사	5(4.9)	10(7.4)
	초등돌봄강사 별도 자격	10(9.7)	26(19.3)
적절한 교사학력	고등학교 졸업	1(0.9)	5(3.7)
	2, 3년제 대학 졸업	30(29.1)	31(23.0)
	4년제 대학 졸업	67(65.0)	87(64.4)
	대학원 졸업	5(4.9)	12(8.9)

다. 취업모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강사 1인당 적절한 아동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취업모는 교사 1인당 아동수 10명 미만(88.9%)을 가장 선호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취업모도 교사 대 아동수 10명 미만(94.2%)을 가장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학급구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용 취업모와 비이용 취업모 모두 '단일학년'(74.8%, 53.3%) 구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자격에 대한 질문에 이용학부모는 보육교사(35.0%), 초등학교교사(26.2%), 유치원교사(24.3%)

순으로 응답하였고, 비이용 학부모는 초등학교교사(38.5%), 보육교사(20.0%), 초등돌봄강사 별도 자격(19.3%)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돌봄강사의 적절한 교육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다수(이용취업모: 65.0% 비이용취업모: 64.4%)가 4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8 참조).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성격에 대한 조사에는 이용취업모와 비이용 취업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비이용취업모는 초등돌봄 교실 프로그램의 성격은 보호+학습(57.0%)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학습위주

표 9. 선호하는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성격

(단위 : 명, %)

구 분	보호	보호+학습	학습위주	차이검증
이용취업모 (103)	14 (13.6)	64 (62.1)	25 (24.3)	$\chi^2=29.33$ $p<.05$
비이용취업모 (135)	12 (8.9)	77 (57.0)	46 (34.1)	

표 10. 선호하는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단위 : 명, %)

프로그램 \ 부모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	차이검증
기본생활 습관지도(37)	6 (17.1)	10 (14.1)	17 (16.8)	4 (12.9)	$\chi^2=19.04$ $p<.001$
사회성증진 활동(36)	5 (14.3)	7 (9.9)	18 (17.8)	6 (19.4)	
숙제지도(61)	11 (31.4)	20 (28.2)	22 (21.8)	8 (25.8)	
학습보충(50)	8 (22.9)	17 (23.9)	20 (19.8)	5 (16.1)	
놀이 및 신체 체험활동(54)	5 (14.3)	17 (23.9)	24 (23.9)	8 (25.8)	
전체(238)	35	71	101	31	

(34.1%), 보호(8.9%)순이었다. 이용 취업모는 초등돌봄 교실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호+학습(62.1%)을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학습위주(24.3%), 보호(13.6%)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비이용 취업모는 이용 취업모에 비해 학습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선호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 취업모는 비이용 취업모에 비해 보호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9 참조).

초등돌봄교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χ^2 검증 결과 취업모의 학력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숙제지도나 학습보충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성증진 활동이나 체험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주말프로그램 이용여부에 대한 요구를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 중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36.9%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는 4.4%만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표 11 참조).

주말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희망시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의 54.5%가 ‘아침+오전시간’을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아침+오전+오후’(22.7%), ‘오전+오후’(20.0%)순으로 응답하였다.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놀이 및 체험활동(34.1%), 학습보충(22.7%) 사회성증진활동(18.2%) 순이었다(표 12 참조).

취업모를 대상으로 방학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희망시간, 희망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

는 취업모의 95.1%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의 8.9%만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표 13 참조)

표 11. 주말프로그램 이용여부

이용여부(명, %)		
이용 취업모 (103)	이용 하겠다	38(36.9)
	이용하지 않겠다	65(63.1)
비이용 취업모(135)	이용 하겠다	6(4.4)
	이용하지 않겠다	129(95.6)

표 12. 주말프로그램 희망시간, 프로그램

(단위: 명, %) $N=44$

문항	변인	빈도
희망 이용 시간	아침돌봄	0(0.0)
	아침+오전	24(54.5)
	아침+오전+오후	10(22.7)
	오전+오후	9(20.0)
	오후+저녁	1(2.3)
	아침+오전+오후+저녁	0(0.0)
희망 프로 그램	기본생활습관지도	5(11.4)
	사회성증진 활동	8(18.2)
	숙제지도	6(13.6)
	학습보충	10(22.7)
	놀이 및 체험활동	15(34.1)

표 13. 방학프로그램 이용여부 (단위: 명, %)

방학프로그램 이용 여부		
이용 취업모 (103)	이용 하겠다	98(95.1)
	이용하지 않겠다	5(4.9)
비이용 취업모 (135)	이용 하겠다	12(8.9)
	이용하지 않겠다	123(91.1)

방학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희망시간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응답자의 47.3%가 ‘아침+오전+오후’를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아침+오전’(30.0%), ‘오전+오후’(28.2%)순으로 응답하였다(표 14 참조).

방학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희망하는 프로그램

표 14. 방학프로그램 희망시간, 희망프로그램
(단위: 명, %) $N=110$

문항	변인	빈도
희망 이용 시간	아침돌봄	0(0.0)
	아침+오전	33(30.0)
	아침+오전+오후	52(47.3)
	오전+오후	31(28.2)
	오후+저녁	1(0.9)
	아침+오전+오후+저녁	1(0.9)
희망 프로 그램	기본생활습관지도	18(16.4)
	사회성증진 활동	13(11.8)
	숙제지도	24(21.8)
	학습보충	32(29.1)
	놀이 및 체험활동	23(20.9)

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습보충(29.1%), 숙제지도(21.8%), 체험활동(20.9%)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14 참조).

취업모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표 15 참조), 아동의 발달과 흥미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37.4%)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 우수한 초등돌봄강사 확보(28.2%),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21.8%)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초등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부모와 초등돌봄교실 비이용 학부모는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chi^2=8.43$, $p<.01$).

초등돌봄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우수한 초등돌봄 강사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부모는 29.1%이고, 초등돌봄교실 비이용 학부모는 22.2%로 나타났고,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부모는 20.4%이고, 초등돌봄교실 비이용 학부모는 32.6%로 나타났다.

표 15.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방안 (단위 : 명, %)

	물리적 환경 개선	우수한 초등돌봄 강사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학교교육 연계한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연계	비용 지원	차이 검증
전체 (238)	11 (4.6)	67 (28.2)	89 (37.4)	52 (21.8)	16 (6.7)	3 (1.3)	
이용 취업모 (103)	5 (4.9)	30 (29.1)	39 (37.9)	21 (20.4)	6 (5.8)	2 (1.9)	$\chi^2=8.43$ $p<.01$
비이용 취업모 (135)	4 (3.0)	30 (22.2)	50 (37.0)	44 (32.6)	6 (4.4)	1 (0.7)	

V. 결 론

본 연구는 초등돌봄교실이 오후돌봄을 확대하여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도입한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파악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여성으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들을 일반적인 배경변인을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지도(90.3%)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초등돌봄교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94.1%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여, 영유아보육에 집중되어 진행되던 돌봄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여성이 자녀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내는 이유는 '방과후 돌봐줄 성인이 없어서'(61.2%)가 가장 많았지만, '친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해서'(15.5%)가 두 번째 이유이므로, 출산율이 낮아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오늘날의 아동양육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취업모는 초등돌봄교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고, 특히 다양한 운영시간과 저렴한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용이 저렴하고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취업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직업, 연령에 따라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학력, 가계소득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다른 활동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한 경우가 고졸 어머니(11.8%)보다 대졸, 대학원졸(64.9%, 61.9%)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에 아동을 참여하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계소득이 300~500만원, 500~700만원, 700만원 이상인 집단은 '다른 활동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0%, 50%, 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이 맞벌이 가족을 위한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프로그램을 대신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보다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모든 계층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 초등돌봄교실이 저소득가정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높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초등학생의 방과후 활동 지출비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계소득, 초등돌봄교실 이용여부에 따라, 방과후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은 집단간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보다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이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아동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퇴근시간 까지 여러 곳의 사교육 기관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수준에서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교육비가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보다 많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과 관리를 엄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시간에 대해서, 아침돌봄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없고, 오후돌봄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아침돌봄을 이용하겠다는 희망자가 많지 않은 것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학교라는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프로그램이 문제인지, 학교가 가정과 떨어져 가정가까이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원하는지...등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맞벌이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여섯째,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2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대부분의 교실이 한 강사가 20

명 정도의 저학년 아동(1, 2학년)을 돌보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모들은 단일학년 아동을 강사 1인당 10명 미만의 규모로 돌보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보내기 희망하는 교실의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다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초등돌봄교실에서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단일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될 것이다.

일곱째, 초등돌봄강사의 자격은 보육교사와 초등학교교사자격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응답자의 70%정도가 대학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초등돌봄강사의 신분이 계약직 직원이 아닌 보다 더 안정적인 위치여야 되고, 근무여건 또한 보다 향상되어야 한다. 학교내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교원의 신분이 아닌 학교회계직이나 단기 고용자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처우조건은, 우수한 돌봄강사가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안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취업모의 요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60%정도가 보호와 학습을 함께 제공하기를 원했고,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요구한 경우도 30%정도나 되었다. 하루일과의 많은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습을 하고 또 방과후의 시간도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한다면 아동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수업시간마저 힘들어할 것이 분명하지만,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서구의 방과후 활동이 놀이와 취미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Nordenstam & Ulveson, 2007; Stecher & Klieme, 2007)는 점을 생각해 보, 현재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이 보호만을 강조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전인발달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시각을 전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학력수준에 따른 부모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 고학력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학습보충에 대한 요구가 작고, 사회성 증진 활동이나 체험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주말과 방학 동안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 주말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고, 방학프로그램은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대부분(95.1%)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학습과 놀이를 함께 고려한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부터 주 5일제 학교 운영으로 주말에도 일하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열 번째, 초등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초등돌봄교실 이용학부모와 초등돌봄교실 비이용학부모는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부모는 우수한 초등돌봄 교사

확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초등돌봄교실 비이용 학부모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모든 초등학교에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취업모들에게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자녀를 돌봄교실에 보내고 있는 취업모는 자녀들을 직접 보육하는 돌봄강사가 보다 더 전문적이고 우수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취업모의 경우, 선호하는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서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응답한 것처럼,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많이 응답하고 있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들은 보다 더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한 결과, 초등돌봄교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수요자의 이용실태와 요구를 반영해 수정되고 보다 더 체계화되고 표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강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와 함께, 추후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보다 더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돌봄정책의 수혜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요구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면 초등

돌봄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7).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매뉴얼.
- 권오인 (2002).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
한 부모 만족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림 (2006). 방과후아동지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학위 청구논문.
- 김홍원 (2011).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초등학
교 방과후 돌봄교실의 과제와 정책방향.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
집, 13-34.
- 노성향 (2004). 방과후아동지도 연구 경향 분
석. 인간발달연구, 11(1), 71-86.
- 노성향 (2005).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이 아동
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6(1), 259-279.
- 보건복지부 (2011). 2010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방
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
국아동복지학, 36, 35-51.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1).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011. 5
월 기준.
- 엄경애 (2010). 고학력여성의 경력단절 및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정책연구소 (2011). 맞벌이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개발.
- 이 옥, 노성향 (1996). 방과후아동지도. 서울:
창지사.
- 이종금 (2005). 방과후 아동지도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1).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
여성 통계.
- 통계청 (2012). 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kostat.go.kr>에서 2012년 4월 12일 인
출.
- 한국교육개발원 (2008). 초등보육강사 연수프로
그램.
- Nordenstam, U., & Ulveson, E. (2007). "After-
school program in Sweden" 한국 교육 개발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국
제세미나 자료집, 281-324.
- OECD (2009). 사회통계지표.
- Posner, J. K., & Vandell, D. L. (1994). Low-
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Stecher, L., & Klieme, E. (2007) "After-school
program in Germany" 한국교육개발원 방과
후학교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자료집, 237-280.

1 차원고접수 : 2012. 7. 9
수정원고접수 : 2012. 8. 18
최종게재결정 : 2012. 8. 31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Mother's
in terms of Elementary School-Age Child Care:
A Focus on the Working Mother**

Rho, Sunghyang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under 10 years in terms of School-Age Child Care(SACC). The research subjects comprised 238 working mothe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working mothers believe in the necessity of SACC and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attending SACC appear to be satisfied with the SACC. Second, working mothers do not appear to want before-school programs but want or require after-school programs. Third,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attending SACC want care and study base-programs. Fourth, working mothers also desire both weekend and vacation programs. Fifth, working mothers also prefer or desire that the teachers of school-age child care programs are university gradua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appears necessary to further develop school age child care program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appears to be a strong need for both long- and short-term policy aimed at the standardization of school age child care teachers' qualifications and the their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Key words : School-Age Child Care, working mothers, elementary school child